문재인 넘어설까…중도·보수층 흡수가 승패 열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확정…대선 승리 풀어야 할 과제

호남 민심이 청와대행 첫 관문
보수·진보 아우를 방정식 풀고
통큰 공약 20·30대 마음 잡아야

예견됐던 대로 국민의당 대선 주자로 안철수 후보가 4일 선출됐다. 문제는 안 후보가 주장했던 대로 '안철수의 시간'이 오느냐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과연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넘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국민의당은 '안풍'(안철수 바람)이 결국 태풍으로 바뀔 것이며 미래를 선점한 안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세나 지지율만을 볼 때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안 후보가 대선 승리를 위해 극복해야 하는 과제들을 조명해 본다.

◇**결국 호남 민심**=국민의당은 호남의 지지로 탄생한 정당이다. 수도권 등 타 지역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호남의 지지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안 후보의 대선 승리는 공염불이다.

일단 호남 민심은 국민의당 경선에서 안 후보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며 기회를 줬다는 평가다. 경선 과정에서 안풍 재현의 동력이 된 셈이다. 여기에 호남 민심은 안 후보의 지지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정권 창출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안철수 바람이 호남 민심의 기저에서 거세지고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왕이면 '호남 주도의 정권 창출'에 무게 추가 쏠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 후보의 호남 공약은 민주당 문 후보에 비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호남의 경제 생태계 복원을 위한 상징적이고 구체적인 그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적폐 청산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약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안 후보는 추격자 입장이라는 점에서 호남의 미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호남의 지지가 결국 안 후보의 대선 승리로 가는 첫 관문이라는 것이다.

◇**중도 및 보수층 표심**=안풍이 다시 부는 배경에는 중도·보수 진영의 비문 정서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석이다. 중도·보수 진영의 확실한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확고한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는 진보적 성향을 보이는 호남 민심과는 배치된다는 점에서 고민의 지점이다. 보수와 진보의 지지를 얻어내는 고차원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것이다.

일단 안철수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세력에 면죄부를 주는 연대와 문재인 후보 등 특정 정치인을 반대하기 위한 연대, 정치인만을 위한 무원칙 연대 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국민에 의한 연대'를 언급했다. 아리송하지만 진보와 보수 진영을 당장은 아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혁신과 미래를 고리로 진보와 보수의 공통분모를 찾아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지역과 세대, 진영 논리를 뛰어 넘는 통합과 혁신의 비전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전만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후보들의 입지를 축소시킬 수 있다.

콘크리트 보수 지지층을 균열시키지 않고서는 안 후보가 얘기하는 양자구도가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충청과 영남에서의 지지율 상승은 안 후보에게 절실한 필요조건이다.

◇**20·30대 지지**=미래 이미지는 안 후보의 정치적 자산이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 접근이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남은 대선 기간 미래를 기반으로 하는 공격적인 정책 공약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치 입문 당시, 안 후보의 가장 큰 지지 기반이었던 20·30대 유권자의 지지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이를 위해 일자리, 주거 안정, 교육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과감한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외교, 안보 경제 분야 등에 대한 준비된 비전 제시도 필요하다. 전문성을 갖춘 과감한 인재 영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폐쇄성이 강한 CEO 리더십에서 벗어나 카리스마 있는 통 큰 정치적 리더십으로 정치적 변수들을 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안 후보의 지지층은 뿌리가 그리 깊지 않다. 자칫 잘못했다간에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실수하지 않는 세심한 대선 관리도 필요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4일 오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19대 대선 후보자 선출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손학규·박주선 경선후보와 함께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IT전문가…2011년 '安風' 일으키며 정치 입문
2012 대선, 4·13 총선 전폭 지지 '호남이 키운 정치인'

안철수는 누구인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에게 빼놓을 수 없는 수식어는 'V1' 이라는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이다.

지난 1988년 서울대 의대 박사과정 중 개발, 이를 무료로 배포했다. 7년여 간 새벽에는 백신 프로그램 개발에, 낮에는 임상 실험에 몰두하는 생활이 시작됐다. 그러던 그가 1995년 본격적인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 개발자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안철수연구소를 창업했고 미국에서 유학하기도 했다.

그는 귀국 직후 미국 유학시절에 들은 강연에 착안해 청춘콘서트를 기획했고 2009년 처음 시도했다.

당시 시골의사로 알려진 박경철 원장과 함께 전국 순회콘서트를 이어갔다. 그는 이 강연회에서 젊은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정치인 안철수로 제2의 삶을 살게 됐다. 그러던 중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안철수 이름이 거론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에 발을 들여놓는가 싶었다.

하지만, 안 후보는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후보직을 양보하며 물러났다. 그런 그가 2012년에는 '정치부터 바꿔야 한다'며 제18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의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정권교체를 위해 백의종군하기로 결심했다.

정치 재개를 위해 2013년 서울 노원병 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고 민주당에 입당했다가 문재인 전 대표와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지난해 초 민주당을 나온 뒤 국민의당을 창당했다.

20대 총선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원내교섭단체로 국민의당을 자리매김시켰고, 이제는 정치개혁을 위해 다시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신혼여행 당시 부인 김미경 교수와 안철수 후보.

안 후보와 호남의 인연도 각별하다.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에 앞서 안 후보는 광주와 전남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얻으며 전국적인 '안풍'(安風·안철수 바람)을 일으키게 된다. 이어 지난해 4·13 총선에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내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이번 19대 대선 당 대선주자로 나서게 됐다.

현 상황에서 안 후보에게 호남은 정치적 고향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특히 부산출신인 안 전 대표는 처가가 여수다. 대학 시절 만난 그의 아내 김미경(54) 서울대 의대 교수는 순천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다. 안 전 대표의 장모는 아직 여수에 거주 중이다.

안 전 대표는 1년에 두 세 차례 정도 아내 등 온 가족과 함께 여수 처가에 내려가 쉬고 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덕분에 안 전 대표는 '호남 사위'라고 자주 언급되기도 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4차 산업혁명 전문가 10만명 양성 일자리 창출
호남 미래자동차·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안철수의 공약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대선 공약은 4차 산업혁명과 창업, 일자리 분야에 집중돼 있다.

IT 기업가이자 과학기술자, 벤처기업 경영자 등의 경험을 세부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다.

안 후보가 내세운 4차 산업혁명은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이 키워드로 4차 산업혁명 전문가 10만명 양성을 핵심 지원책으로 제시했다.

일자리 확대 공약은 정부가 아닌 기업과 민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신성장산업과 첨단수출 중소기업 육성을 비롯한 과학기술 투자, 산업구조 개편 등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이다.

청년일자리 해법으로 청년고용보장제도를 제시했다.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5년간 한시적 고용을 보장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안 후보의 학제개편을 통한 교육개혁 공약도 대표적 공약으로 꼽힌다. 지금의 학제를 5·2·2로 개편하는 공약이다. 만3세에 2년 과정 유치원에 입학하고, 만 5세에 초등학교 입학, 이후 5년, 5년, 2년으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현행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해 장관이 아닌 교사와 학부모·국회 등이 교육 정책을 관리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정치개혁과 재벌개혁도 주요 공약중 하나다. 그동안 공정성장, 공정사회를 강조해온 안 후보의 철학이기도 하다. 국민투표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공천제 도입, 대기업 불공정 행위 제제 강화 등 재벌들을 위한 특혜를 없애고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의 대표적인 호남공약은 '호남 발전'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인사와 예산에서 소외됐던 호남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지역격차라는 불공정을 없애, 공정한 경제발전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호남 특성에 맞춘 선택과 집중식 지역발전을 비롯해 사회·문화·산업인프라 활용과 미래성장 산업 중점 개발을 지역발전 방향성으로 내세웠다.

구체적 공약으로는 미래자동차 및 우주항공산업 거점 육성,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 포함됐다. 또한, 전남북 공동체 미래프로젝트로는 해양에너지 복합발전플랜트 육성, 동북아 해양수산광광 산업 국제선도지구 지정, 서해 황금어장 복원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Tel.(062)234-3222 Fax.(062)234-3141
NAVER 조이투어 검색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LTD
http//www.joytour.kr

대표이사 최금환

봄특선 벚꽃구경~ 무안에서 떠나세요!
무안출발은 조이투어로~
관광·휴양·온천·체험·골프 여행은 무안국제공항에서 출발하세요~!!
일본여행/국내·제주여행/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www.joytour.kr

항공왕복 북큐슈 2박3일 "봄" 상품 [매주 금요일 출발/3월 31일~6월 4일]

〈북큐슈 정통〉	벳부·유후인·후쿠오카·기타큐슈	1인	579,000원~
★한정특가★	3/31, 4/14 북큐슈 여행	1인	499,000원~
〈야마구치 정통〉	야마구치·하기·시모노세키·기타큐슈	1인	799,000원~
〈우레시노 정통〉	우레시노·가라츠·후쿠오카·기타큐슈	1인	799,000원~
〈골프상품〉	기타큐슈 골프	1인	999,000원~

※ 골프상품 인센, 단독은 문의바랍니다.
※ 4/28, 4/30, 5/3, 5/5은 골든위크기간이므로 별도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항공/선박 편도 북큐슈 "봄" 상품 [매주 일·화·수요일 출발/4월 2일~6월 6일]

〈일요일 출발〉	3박4일 항공 + 선박 (선착순 한정 30명)	1인	399,000원~
〈화요일 출발〉	3박4일 선박 + 항공	1인	499,000원~
〈수요일 출발〉	2박3일 선박 + 항공	1인	399,000원~
〈올레길〉	산악회를 위한 큐슈올레길 2박3일 매주 수요일 출발	1인	399,000원~
〈항공/선박〉	후쿠오카 골프 36H 3박4일	1인	799,000원~

무안 ↔ 다낭 전세기 "봄" 상품 [매주 수·토요일 출발/4월 19일~6월 24일]

1. 항공 + 에어텔	1인	749,000원~
2. 다낭·호이안·후에	1인	799,000원~
3. 다낭·후에·밧마·호이안트레킹	1인	849,000원~

항공·선박 왕복 제주도 "봄" 상품 [매일 출발/3월 24일~7월 20일]

〈광주〉	제주도 웰빙여행	1인	299,000원~
〈목포〉	선박왕복 제주도 여행	1인	189,000원~

※ 제주상품은 석식 2회, 옵션은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올포함〉 대마도 1박2일 [4월 23일] 279,000원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동다 2003-1호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곳 조이투어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상품:1억원,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계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전지역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업체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비없음(단,기사/가이드봉사료,선택관광,각국 비자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